



"동네가 번하니까 다 내 세상인 줄 안다"

뜻: 세상이 밝아지거나 좋은 일이 조금 생겼다고 해서, 세상 모든 일이 다 자기 뜻대로 될 것이라고 착각하며 지나치게 들뜨는 것을 뜻한다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무지 · 과대망상 · 낙관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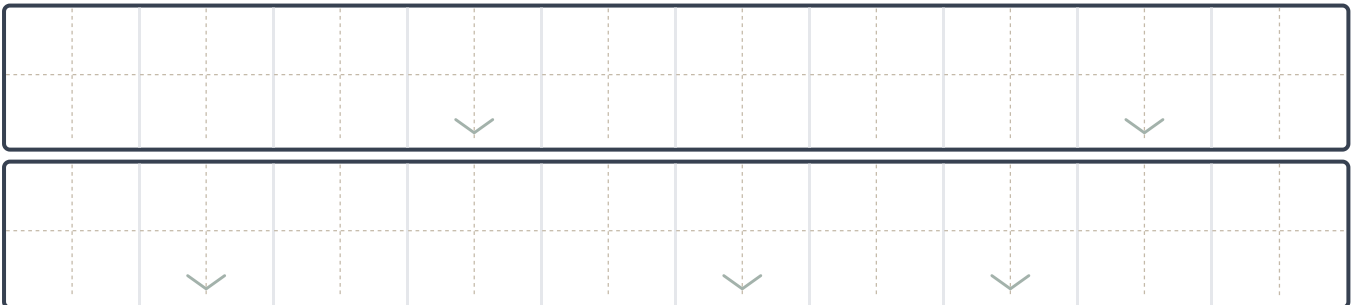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ㄷ][ㄴ][ㅇ] [ㅂ][ㅎ][ㄴ][ㄱ] [ㄷ] [ㄴ] [ㅅ][ㅇ] [ㅈ] [ㅇ][ㄷ]

웹에서 보기

